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예배

인도자 : 가족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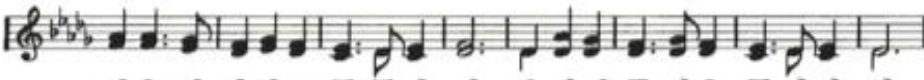
예배의기원 인도자

전능하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잇고) 다 같이



1. 사철 에 봄바람 불어잇 고 하나님 아버지 모 션으 니
2. 어비 이 우리를 고이시 고 동기를 사랑에 묻 쳐잇 고
3. 아침 과 저녁에 수고하 여 다같이 일하는온 식구 가



믿음 의 반석도 든든하 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 라
기쁨 과 설움도 같이하 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라
한상 에 둘러서 먹 고마 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라



고마워 라 입마누 엘 에 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라 입마누 엘 복 되고 즐거운 하 루하 루

대 표 기도 가족 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로 귀한 결실을 삶 가운데 거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땅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만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 손들을 보호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65편 11절 인도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

말씀나눔 주님이 지나가신 자리에 인도자

여러분, 한가위를 맞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 **해를 관 씌우시니**"는 히브리어의 해석을 좀 더 깊이 해석하자면 '**한 해를 영광스럽게 꾸미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부터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한 해의 모든 과정을 돌보시고 아름답게 완성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풍성하게 거두면 성공이라 생각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패가 새로운 길의 디딤돌이 되고, 시련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과 삶의 뿌리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아프고 힘든 날이 있었고, 걱정으로 잠들지 못한 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질 때 붙드시고, 막막할 때 견딜 힘을 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씌워 주신 은혜의 관입니다.

본문은 또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 방울이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자리마다 생명과 풍요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뜬 것, 일할 힘을 얻은 것, 어려울 때 곁을 지켜 준 가족과 이웃이 있었던 것, 낙심 가운데 다시 일어선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65편은 풍성한 곡식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은혜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한가위에는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용서를 나누어야 합니다. 농친 감사를 되찾고, 서운함은 풀고, 서로의 아픔을 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가 우리 가족의 풍성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큰 홍수로 많은 희생과 피해를 겪은 네팔의 소식을 들으며, 한쪽에서는 감사의 밥상을 마주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받은 복을 헤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자리에는 풍요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말에는 위로가, 우리의 손길에는 도움이, 우리의 만남에는 기쁨과 평안이 남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가보다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복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갑시다.

주님이 지나가신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았듯이, 우리 가족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사랑과 위로와 감사가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어 당신 품에 품으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고 누린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빛과 생명,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301장(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 이

1. 지 금 까 지 내 온 것 주 의 크 신 은 헤 라
 2. 물 도 많 도 연 약 하 나 새 힘 받 아 살 았 네
 3. 주 님 다 시 회 을 날 이 날 로 날 로 다 가 와

한 이 없 는 주 의 사 랑 어 찌 이 루 말 하 라
 돌 못 거 인 주 으 게 말 겨 주 의 은 혜 도 하 다
 부 족 한 집 부 게 말 겨 주 의 은 혜 도 하 다

자 나 깨 나 주 의 손 이 항 상 살 피 주 시 고
 나 를 위 해 에 비 하 신 고 향 집 에 들 멜 아 가

모 든 일 을 주 안 에 서 형 통 하 게 하 시 네
 주 의 손 을 주 안 에 서 고 찬 동 하 며 가 리 라
 아 버 지 의 돌 랐 안 에 서 영 원 토 록 살 리 라

주 기도 문 다 같 이

가족별 나눔의 시간 ... 감사한 일 미안한 일 기도 제목 등... 다 같 이

2026년

본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예배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국 기 독 교
상 로 회

청 주 제 일 교 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3번길 15 (구. 남문로 1가 154번지)

(043) 256 - 3817 ~ 8